

# 지역과 더 밀착...인재 키우고 미래 이끌어야



**<5> 제 역할 하려면**  
**장기 계획 세워 경쟁력 제고**  
**연구기능 주도적 활용토록**  
**지역기업과 동반 성장 모색**  
**정부 획일적 규제도 개선해야**

■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결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 가운데 지역대학과 인턴십을 맺은 기관은 3개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인 협동과정을 개설한 기관도 2개에 그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교육·연구 과정 협력을 위한 행보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광주·전남 10개 대학 전기관련학과 3·4학년 학생 56명은 지난해 한국전력의 '제1기 에너지밸리 전력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 전력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 등을 받고 이들 중 4명은 에너지 관련 기업에 올 해 초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5명도 관련 기업 취업을 앞두고 있다.

한전이 나주혁신도시로 내려와 처음 실시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구 유출은 지역 교육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기초 동력이 되는 만큼 지역 대학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역대학 발전 모델과 관련, 대학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지역 사회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과 연계, 클러스터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한편,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철저한 지역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역할이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및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및 연구 기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진행중인 '전력 산업분야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 등과 관련, 지역 대학의 연구 기능이 주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 기반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도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2025년까지 생산유발 효과만 2조978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3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동신대가 에너지밸리 조성에 맞춰 에너지 분야를 특성과 분야로 육성하는가 하면, 전남대는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실증 공동연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2~3년 지원하다가 후속 지원 없이 끝나는 프로젝트나 당장의 취업을 높이는 데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장기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담당할 인

력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도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합, 총장 직선제 등을 연계해 추진하면서 지방대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도외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대학 경쟁력 확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역·대학간 격차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이진철 동신대 교수는 "지역 대학이 인재와 R&D 기반을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그런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 대학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면서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지방자치단체장과의 정기적 간담회 등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끝>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재력이 행세하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

### 광주북부경찰, 30대 영장 신청

재력이 행세를 하며 1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여 수억원대 스포츠카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사기)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A(49)씨 등 9명으로부터 모두 132억4700만원을 받아 이중 25억75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을 서울의 투자회사 간부로 소개하며 "고액채무자들이 상대로 대출사업을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5~12%의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더 많은 투자금을 받거나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가로챈 투자금으로 8억원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등 고급 외제차 4대를 구입해 타고다니는 등 명품 구입, 도박자금, 휴양비용, 게임 아이템 결제 등에 25억원을 탕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남부경찰, '교생실습 일지 허위 작성' 수사 착수

4주간 진행된 교생 실습에 단 하루도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해줬다가 들통<광주일보 7월 5일 7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남부경찰은 광주 남구 모 여자고등학교가 실습 교육을 받지 않은 교생 A씨가 실습을 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처리해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간 진행된 현장 실습교육에 하루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학교는 이 교생이 실습을 마친

것처럼 처리했다. A씨는 폐결핵을 진단받아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학생과 격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인정해줬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생 실습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실습일지도 다른 교사가 대신 작성하고 교생 A씨가 교장 지인의 딸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제보와 조사를 거쳐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한 상태며, 이와 별개로 광주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로 연결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닭·오리 위생 점검

초복을 10여일 앞둔 7일 광주 북구청 경제정책과 직원들이 북구 일곡동 한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 북부경찰 간부들 '부적절 회식' 물의

### 민간협력위원회에 술접대 받아...민간위원은 성추행 연루

### 광주경찰청 "사실 관계 조사중"

이성순 광주북부경찰서장 등 경찰서 간부들이 민간 협력위원회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물의를 빚어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또 북부경찰이 향응을 제공한 민간 협력위원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9시께 광주시 북구 한 건물 1층 카페에서 북부경찰서 민간 협력위원 A씨가 카페 여주인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제는 사건 발생 직전인 같은 날 오후 7시께부터 이성순 광주북부경찰서장 등 경찰서 과장급 간부 12명이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민간 협력위원 A씨 등 4명으로부터 저녁식사를 겸한 술접대를 받아서다. 또 경찰 간부들은 회식 직후 민간 협력위원 한 명으로부터 대리운전

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았고, 일부는 이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부경찰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소문과 함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경찰서 간부 B씨가 사건 직후 A씨를 껴안는 등 조인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조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순 서장은 "협력위원들이 5·18 비상근무를 마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수사과정에서 외압은 있을 수 없고 규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총경과 경정급 간부들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국고보조금 횡령 화순전남대병원 전 팀장 영장 청구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화순전남대병원 전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 장모 전 팀장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전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사업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팀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무실에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0년부터 국비 13억여원을 받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에 쓰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남구청 공무원노조 "남광인 의원 갑질 사과하라"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남구청 노조)는 7일 성명을 내 "갑질, 부당한 행정 개입을 일삼는 남광인 의원은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남구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불쾌했을 수 있지만, 갑질이나 부당한 규정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 의원은 최근 남구 월산동 통장 위촉 과정에 개입하고 이 업무

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그 인물은 통장 시키면 안 된다. 서류도 받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합든 부서로 보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놔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반대하는 통장이 재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노조의 주장은 과장됐다.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 환심 산 뒤 수억원 뜯어낸 40대

○...외로움을 잘 타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사업자금 등을 핑계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쇠고랑 신세.

○...7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한모(47)씨는 지난 2009년 5월 광주 남구에서 건강식품 행사장을 열며 알게 된 A(여·69)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2년 9월까지 광주, 순천, 무안, 경남

통영, 충남 공주를 돌며 노인 9명에게서 4억원을 빌린 뒤 종적을 감췄다는 것.

○...한씨는 경품 추첨 등으로 노인들을 끌어 모은 뒤 제품 구입 권유 대신 사사를 함께하거나 업어주고 돌봐주는 방식으로 아들처럼 살갑게 굴어 신뢰관계를 쌓은 뒤 "행사장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높은 이자까지 쳐서 금방 갚겠다"고 꾀어달아냈다가 결국 경찰에 걸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물들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매매 - 1억 6천만원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좋은 36세대중 20세대 거주 매매 - 83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낙찰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